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0월 9일 (제86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하늘이 열린 날, 평화통일의 문도 열렸다

10.3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의 평화통일 기도성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이사야 22:22)는 말씀을 우리는 몸으로, 눈으로 확인했다.
폭풍우를 거두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휴전선도 거두실 것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봉우컬럼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있었던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자들을 다 기록했듯이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수고도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도 역사적인 순간에 증인이 되었으니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저는 여러분을 한껏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란 부모 밑에만 자유라는 자

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가 맘껏 자유를 누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통일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성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은 이루어집니다. 마치 꿈꾸는 듯 그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통 하

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하교회에서, 혹은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북핵 동포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열강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닫힌 휴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이 나라를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朋友 이초석 목사

- ♥ 기도로 역사를 바꾼 날! (서울 장화정)
- ♥ 평화통일 그날은 곧 올 것이고 우리는 이미 보았다. (부산 이은총)
- ♥ 이제는 김일성 광장으로!! (서울 문지훈)
- ♥ 하나님의 역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판타스틱!!! (인천 김유미)
- ♥ 나는 주님의 움직임을 보았다. 우린 그곳에 있었다. (대전 신민음)
- ♥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통일! (서울 오슬기)
- ♥ 하나님의 군대가 선포한 통일, 이제 김일성 광장오로! (세종 하인명)
- ♥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서울 이지훈)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자 토크(Talk)!!

- ♥ 너무나 뜻깊은 하루! 함께 예배드린 것도 감사! (강릉 염윤택)
- ♥ Nothing is impossible! 통일이여 오라! (전주 최소연)
- ♥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날! (서울 김다혜)
- ♥ 젊은이의 미래는 통일!! (전주 김하진)
- ♥ 하나 되길 염원하는 모임, 곧 있을 만남에 대한 확신! (수원 임재홍)
- ♥ 곧, 다가올 은혜의 물결! (서울 이예량)
- ♥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 (대구 이호민)
- ♥ 누군가의 기도 속에 이루어낼 평화통일! 그 중심에 예수중심이 있었다. (경기 김대웅)
- ♥ 이미 이루어진 평화통일! (서울 이다인)
- ♥ 생전에 통일을 목도하리라! (광주 김진화)
- ♥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대구 양수원)
- ♥ 기도불이 그린 평화통일! (서울 김재영)
- ♥ 우린 볼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평화통일을~ (안산 배주란)
- ♥ 무한감사 기도성회 대박!! (수원 정빛나)
- ♥ 전쟁 없는 대한민국이다. (병점 김나은)

- ♥ 낙수가 바위를 뚫듯 우리 기도로 평화통일 이루리! (서울 송현혜)
- ♥ 남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배방 서하경)
- ♥ 날씨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평화통일도 기대됩니다!! (인천 서선라)
- ♥ 기도성회 현장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었다. (광주 김우정)
- ♥ 통일이 된 듯한 꿈같은 날! (서울 박소영)
- ♥ 평화통일의 주인공인 우리! 행복했습니다! (서울 박미영)
- ♥ 향하자! 김일성 광장으로. (대구 김은주)



전쟁기념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치고

*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반복될수록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출정식과 같이 장엄하였습니다. 설레임과 뜨거움으로 말입니다. - 부산교회 이구원 목사

* 우리의 기도가 개천절에 개천(開天)이 되어 거센 폭우가 청명한 하늘이 된 것처럼, 북한의 체제붕괴와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세계 유일한 예수중심교단이 용산 평화의 광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 전쟁 없는 평화통일이 반드시 이룩될 것입니다.

- 양주교회 강반석 목사

* 평화통일 기도성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초석 목사님, 멋진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춤추면서 victory, victory, victory 외칠 때, 아침 빛소리에 애통하는 이초석 목사님을 생각하며 흐느끼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스쳐지나갔지요. 오, 주님~ 응답하신 그 사랑에, 구름 한 점 없도록 하늘을 열어주신 예수님, 감사, 감사해요.

- 캐나다 합상훈 목사

* 외국에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흔히들 한다. 하지만... 어느 날 한국에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얘기했었다. 그 때, 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전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비참함이란 더 말할 수도 없겠지만, 더구나 나라를 잃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는 더욱더 모르는 것 같았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들은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전쟁을 피하여 본인만 한국을 떠나면 잘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진정 그럴까?

오늘 나는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참석했다. 총회장 목사님과 예수중심교회가

이 평화통일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또한 그 속에 내가 함께 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도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진실함으로 한마음 한뜻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신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와 집회를 준비했던 모든 손길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고,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춤을 추는 멋진 집회였다. - 중국 상해 송수근 집사

* 때가 되어 갈망하고 기다리던 이 땅의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가슴 벅차 찬양합니다. - 서울교회 신기류 목사

*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중심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평화통일의 길이 속히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 울산교회 이택희 목사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 여주교회 한광욱 목사

*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에서 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꿈같은 평화통일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 제주교회 김중훈 목사

* 꿈꾸듯 다가올 평화통일!!! 벅찬 감동의 그 날을 위해 한 걸음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 구미교회 라현종 목사

* 가슴이 벅차오른다. 누가 이 일을 하고자 하겠는가. 시청 앞에서, 또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인천교회 장영국 목사

*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필두로 하여 교단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울부짖는 합심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랄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예수중심교단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곧 평화통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립니다. - 광주교회 최권능 목사

* 통일의 염원은 너와 나의 염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니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제 기도성회를 통하여 새삼 목도하였습니다.

- 진주교회 김일중 목사

* 대한민국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 없이 남북이 평화통일 되어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10월 3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가 기도한대로 꼭 남북이 평화통일이 되리라 믿는다!! - 양산교회 고귀한 목사

* 전쟁기념관 복도 양 옆에 전사한 장병들 이름과 무명용사들의 이름 없는 비명... 젊은 나이에 전사한 젊은이를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한 이유다. - 안성교회 오병열 목사

* 오늘 우리가 심은 사과나무가 너무 어리고 그 가지가 작아서 언제 열매를 따나 싶겠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봅니다. 반드시

시 그 열매를 내가, 아니 우리가 따고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 강릉교회 김상복 목사

* 할렐루야! 이번 10월 3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하신대로 이루어져 반드시 평화통일이 된다는 깊은 확신을 받았습니다. - 대산교회 한춘수 목사

*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화창한 날씨로 축복하시고 주님을 느끼고 만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 기도원 이세명 목사

*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 교단에서 주 최한 남북 평화통일집회는 그야말로 감격 그대였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평화통일 집회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해야만 되는 우리 교단의 사명입니다.

- 순천교회 이상범 목사

*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목도했다.

- 제천교회 예수만 목사

* 저도 6·25전쟁 때 오빠가 입대하여 전사한 아픈 상처가 있기에 전쟁만은 안 된다는 목사님의 절실한 주장에 동감합니다. 한국 모든 교계가 이 기도성회에 동참하여 기도한다면 평화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 북파교회 박나연

* 평화통일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모든 영광 주님께!

- 홍천교회 박태복 목사

다음주에 계속



평화통일 기도성회 *Prayer Assembly for Peaceful Unification*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2016. 10. 3



제 8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김일성 광장에서!

평화는 서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라면, 전쟁은 서로 치고, 부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왜 전쟁영웅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전쟁 영웅들에 대해서는 칼로 전쟁할 때부터 근자까지 수없는 인물들을 기억한다. 헤라클레스, 시저, 한니발, 칭기즈칸, 나폴레옹... 어린이들도 익숙할 것이다.

인간의 내면 깊숙이 그런 자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까?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일까?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조금씩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쟁 영웅이 죽임 놀이 되지 않고 영웅이 된 것 같다.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

은 우월감?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은 많고 적고 간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싸우고 죽이는 전쟁도 계속될 것이다.

인간은 그냥 두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싸우고 죽이도록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듯하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마귀적 본성이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외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평화가 그냥두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그냥 두면 다 투다가 끝내 싸우고 울고 난리다.

인간은 평화자가 필요하다. 누군가 중재를 해야 한다.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희생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친다. 지금 북

한 정권의 행태를 보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다. 돌 한 개도 흔들리지 않는 난공불락 여리고 성의 모습과 흡사하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이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외치고 애통한다. 우리의 소원은 사실상 예수다. 평화통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이요, 그 분만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분을 부를 뿐이다.

태풍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온다는 뉴스 속에, 아침부터 준비관계로 비가 그쳐야 되는 상황,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 기도

에 응답하셨고, 내리쬐는 가을 햇볕은 날 알을 영글게 하듯 우리의 얼굴을 붉게 익혀버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며 즐거워했다.

집회를 위해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 주의 종들, 직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통하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신 성령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휴전선이 열려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김일성 광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본부장 이시대 목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10월 3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의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가능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듯,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듯, 산업일군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듯, 이번 성회 역시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이고, 그리

고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가 기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들고 전도에 나서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도로를 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현수막과 티셔츠를 디자인해준 재능 기부자와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통역을 담당하며, 안내를 담당하고, 피약별 아래 광장을 누비며 영상 및 사진촬영에 헌신한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회 전날 밤 비가 오는 중에도 단상을 꾸미고, 성회를 마친 후에도 끝까지 남아 단상 해체작업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다 해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안내위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순서로 공연을 준비한 그레이스 콰이어와 챔버, 현진옥 권사와 전소정 자매, 서울 홀리워십팀, 인천의 리조이스,

장연숙 전도사와 교육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수고 무엇 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는 감동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화통일이 되는 날, 여러분은 남들과 다른 감회를 느끼실 것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여러분의 수고로 이룬 집회 영상을 꼭 같이 봅시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자 신묘수

